

금나라 시조의 출자지(出自地)에 관한 재론(再論)*

강 준 영**

국문초록

본 논고는 금과 고려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금나라 황실 시조의 출신에 대해 기존의 견해들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기존에 이를 연구한 일본, 중국, 한국의 학자들은 각국의 정치적 입장 속에서 주관적으로 이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금나라 황실 시조의 출자지로 기록된 ‘신라’와 ‘고려’를 동일선상에서 해석했지만 실제 사료에서 ‘신라’와 ‘고려’로 달리 기술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나라 황실 시조의 출자지를 ‘신라’라고 기록한 문헌들 대부분은 송나라 사람들이 저술한 것으로 대개 홍호의 『송막기문(松漠紀聞)』을 보고 기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나라 사람들은 이전부터 여진지역을 신라로 비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편칙(編勅)’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허항종의 『선화을사봉사금국행정록』에는 여진의 땅에 여진인들이 불렀다는 ‘신라산(新羅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신라산이란 지명이 대개 신라인들이 모여 살던 곳에 보이는 지명인 점을 통해 볼 때 이 신라산의 주변에도 신라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여진지역에 있던 ‘신라산’의 주위에 거주하던 신라인 ‘함보’가 금나라 완안부의 시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달리 『금사』와 『고려사』에서는 금나라의 시조가 ‘고려’ 출신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금사』에서 시조를 ‘고려’ 출신이라고 한 것은 발해 유민들과의 융화를 위함이었다고 보인다. 이와 달리 『고려사』의 기록에서 당시 완안부의 수장들이 자신들이 ‘고려’로부터 나왔다고 한 것은 9성을 돌려받기 위한 것과 같은 외교 교섭을 위한 정치적 수사였다.

[주제어] 여진(女眞), 금나라 시조(始祖), 신라(新羅), 고려(高麗), 송(宋), 신라산(新羅山)

* 본 논문은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2014년 하계 국제 학술대회> “동북아 유목신앙과 유목민의 정보기술”(2014년 7월 8일, 중국 내몽고자치구 헨린보이르 대학 도서관 강당)에서 발표한 「金 皇室 始祖의 出自地에 관한 再考」 및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12세기 초엽 금(金)의 대(對)고려 관계 연구」의 Ⅲ장 1절 ‘금나라 황실 시조(始祖)의 출자지(出自地) 재검토’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중국 내몽고대학교 박사과정 / ab522412@nate.com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금 시조의 고려 출자설에 관한 새로운 견해 |
| II. 금 황실 시조의 실존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V. 맺음말 |
| III. 금나라 황실 시조의 출자지 재검토 | |

I. 머리말

916년 개국한 이래 동북아시아¹⁾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요(遼)가 11세기 중엽부터 점차 쇠락해가기 시작했다.²⁾ 이와 달리 요나라의 동부에서는 여진(女眞)³⁾ 세력이 점차 성장하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 완안부(完顔部, Wanggiyan)⁴⁾가 있었다. 금을 건국한 태조(太祖) 아골타(阿骨打, Agūda)⁵⁾의 조부(祖父)인 경조(景祖) 오고내(烏古迺, Ugūnai)⁶⁾는 요나라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완안부의 세력을 키워나갔다. 요나라는 그의 공을 높이 사 생여진부족절도사(生女直部族節度使)⁷⁾란 벼슬을 하사할 정도로 대단히 신임하였고, 요나라를

- 1) 동북아시아는 아시아의 동북부(東北部) 지역을 일컫는 용어로 지리적 위치를 보면 좁게는 한국·중국·일본의 3개국을 가리키며 넓게는 몽골, 러시아의 극동 지역 및 시베리아를 포함한 지역들을 가리킨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동북아시아는 현재의 지리적인 개념에서 12세기 초엽 요와 금이 교체되던 시기 금나라와 관계를 맺었던 정치 세력이 있던 지역들을 가리키기 위한 개념이다. 이에 해당하는 당시 동북아시아의 국가들로는 요(遼)를 비롯하여 서하(西夏), 송(宋), 고려(高麗)가 있으며 일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 2) 바필드[Thomas J. Barfield]는 1005년 전연의 맹약 이후 영토 확장의 꿈을 포기하고 현상유지에 노력한 거란은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보았으며 그 이유로 거란의 이원적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송의 세페라는 수입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결국 11세기 후반 거란은 재정적 위기를 맞았다고 보았다. 토마스 바필드(저), 윤영인(역), 『위태로운 변경』, 동북아역사재단, 2009, 365~366쪽.
- 3) 여진(女眞)이란 부족명이 처음 보이는 것은 『遼史』 卷1 太祖本紀의 “明年春(903년), 伐女直, 下之, 獲其戶三百.”란 기록이다. 여기에서 여진(女眞)을 여직(女直)으로 기술하였는데 이는 요나라 흥종(興宗)의 이름인 종진(宗眞)을 피휘(避諱)하여 ‘진(眞)’을 ‘직(直)’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高麗史』, 『宋史』 등에서는 여진(女眞)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北風揚沙錄』의 “金國本名朱裏眞, 番語舌音訛爲女眞, 或曰慮眞.”이란 기록을 통해 여진이란 족명(族名)은 와전되어 전해진 것이며 본명은 ‘주리진(朱裏眞)’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리진은 만주어로 ‘주선(jušen)’이라고 고증된다. 여진이란 족명은 여타 사서(史書)들에서 여정(女貞), 주리진(朱里眞), 여진(慮眞), 주리진(朱理眞), 주아차(主兒扯), 철아적(徹兒赤), 주리선(朱里先), 주선(朱先), 여질(女質)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李學智, 「釋女眞(上)」, 『大陸雜誌』 16: 2, 1958을 참조. 본고에서는 이 표현들을 통칭하여 여진(女眞)이라고 표기하였다.
- 4) 완안부(完顔部)는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의 부족으로 알려졌다. 완안(完顔)은 ‘왕(王)’을 뜻하는 여진어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이 완연하(完顔河) 부근에 살았기 때문에 완연(完顔)과 음이 비슷한 완안(完顔)을 부족명으로 삼아서 사용했다고 보기도 한다(何光嶽, 『女眞源流史』, 江西教育出版社, 2004, 37~39쪽). 『欽定金史語解』에 따르면 완안이란 말은 만주어로 왕기안(Wanggiyan)으로 고증된다(본고에서는 뮐렌도르프(Möllendorff)의 만주어 전사법을 따랐다. P. G. von Möllendorff, *A Manchu Grammar, with Analysed Texts*,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92). 고려(高麗)에서는 『高麗史』 卷11, 肅宗世家1, “(7年 夏4月)東女眞酋長盈歌, 遣使來朝. 盈歌即金之穆宗也.”와 『高麗史』 卷13, 睿宗世家2, “(4年 6月)東蕃使裏弗史顯等來朝. 庚子御宣政殿南門引見裏弗史顯等六人, 宣問來由, 裏弗等奏曰昔我太祖盈歌, 嘗言我祖宗出自大邦, 至于子孫義合歸附. 今太師烏雅來(康宗)亦以大邦爲父母之國”라는 기록을 통해 완안부를 달리 동여진(東女眞)이나 동번(東蕃)으로도 불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欽定金史語解』에는 아고달(阿固達)로 쓰여 있으며 그 발음은 아구다(Agūda)로 고증된다.
- 6) 『欽定金史語解』에는 오고내(烏古迺)로 쓰여 있으며 그 발음은 우구나이(Ugūnai)로 고증된다.
- 7) 『金史』 卷1, 世紀, “遼主召見于癡殿, 燕賜加等, 以爲生女直部族節度使”란 기록의 뒤에 ‘요나라 사람들은 절도사를 태사라고

뒷배로 삼은 완안부는 이후 여진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1115년에 이르러 아골타가 국호를 ‘대금(大金)’으로 정하고 나라를 건국하기에 이른다.

금나라를 세운지 10년만인 1125년에는 동아시아의 패권국이자 자신들의 주적이었던 요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고,⁸⁾ 1127년에는 송(宋)나라의 황제인 휘종(徽宗)과 흠종(欽宗)을 붙잡으면서(靖康之變) 북송(北宋) 시대를 끝내는 등 파죽지세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동북아시아는 금을 정점으로 하여 질서가 재편되었다.

완안부의 대두와 금나라의 건국은 고려(高麗)의 건국 직후부터 국경을 접하며 때로는 원수 사이로 때로는 군신 관계를 맺었던 고려와 금 양국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⁹⁾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금나라가 건국되고 난 이후부터 1234년 애종(哀宗)이 자살하며 금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금나라가 고려를 대대적으로 침공한 적이 없었다. 고려를 침공하지 않은 일은 금나라 이전에 건국한 요나라가 고려를 3차례 침공한 것이나¹⁰⁾ 금나라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대몽골제국(Yeke Mongxol Ulus)이 고려를 상대로 7번이나 침공하였던 사건과는 비교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금나라가 요나라나 대몽골제국과 달리 고려를 대대적으로 침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금나라 황실의 시조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시조에 대한 문제는 그가 정말 실존했는지의 여부부터 어디 출신인지에 대한 의견까지 각국의 정치적인 목적과 결부되면서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금과 고려의 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적 입장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나라 황실의 시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두루 살펴보고, 기존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여타 자료들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금나라 황실 시조의 출신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금 황실 시조의 실존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금과 고려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금나라 황실의 시조(始祖)에 대한 것

불렀으니 금나라 사람들이 도태사라고 칭하는 것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遼人呼節度使爲太師, 金人稱都太師者自此始).¹⁾란 기록이 남아있다. 대몽골 올로스의 초대 황제인 칭기스칸에게 귀부한 야율아해(耶律阿海)와 그의 둘째 아들인 야율면사가(耶律綿思哥)는 후에 ‘태사(太師, Toušā)’란 직위를 지니고 약 20년 간 부하를 통치했는데 그들의 업무가 ‘바스각(Bāsqāq)’이 나 ‘대 - 다로가치(Yeke-Darugači)’와 동일했다는 점을 통해 태사(=절도사)란 직위가 몽골의 다로가치(達魯花赤) 제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확인된다.

- 8) 바필드는 여진이 요를 공격하는데 성공한 이유로 내부 농민 반란과 조정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거란 수비군의 붕괴로 보았다. 토마스 바필드(지), 윤영인(역), 앞의 책, 2009, 369쪽.
- 9) 이와 달리 왕송시(王崇時)는 고려 초기에 고려와 여진은 국경을 접하지 않았으며 서로 멀리 떨어져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보았다. 王崇時, 「十至十二世紀初女眞與高麗的關係」, 『北方文物』, 1986-3.
- 10) 거란의 1차 고려 침공은 993년 이었고, 2차는 1010년, 3차는 1014년이였다. 학계에서 2차전과 3차전을 구획하는 데 대한 의견이 분분한 실정인데 최근 육정임은 고려와 거란의 전쟁을 ‘30년 전쟁’으로 통칭할 것을 제안했다. 육정임, 「고려·거란 ‘30년 전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동북아역사논총』 34, 동북아역사재단, 2011.

이다. 근대에 들어서 금나라 황실의 시조에 대해 처음 연구했던 학자들은 일본의 학자들이었다. 이들의 연구 이유는 만주지역(滿洲地域)을 일본의 정치적 영향권으로 넣기 위한 일환으로 만주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내등호차랑(內藤虎次郎),¹¹⁾ 지내굉(池內宏),¹²⁾ 전판흥도(田坂興道),¹³⁾ 소천유인(小川裕人),¹⁴⁾ 삼상차남(三上次男)¹⁵⁾ 등을 들 수 있다. 내등호차랑(內藤虎次郎)의 연구는 금과 고려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닌 단순히 사실과 전설 사이에는 다른 점이 많다고 설명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이를 제외하고는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금나라 황실의 시조가 가공의 인물이라고 보았다. 1970년대 삼상차남이 자신의 기존 연구 성과를 발간했는데¹⁶⁾ 여기서도 금나라 황실의 시조를 가공의 인물이라고 보는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일본 학자들이 금나라 황실의 시조를 가공의 인물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당시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까닭으로 풀이된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식민주의 역사학¹⁷⁾을 통해 한국사를 연구했고, 정체성론과 타율성론 등의 논리를 들어 한국은 미개한 국가이며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12세기 초 요를 무너뜨리며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재편한 금을 세운 여진족, 그 가운데 황실인 완안부의 시조가 ‘신라’ 혹은 ‘고려’ 출신이라는 것은 식민주의 역사학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논리와 반대이므로 금나라 황실의 시조를 가공의 인물로 본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지내굉이다. 그는 금나라 황실의 시조 전설은 생겨진 부족 습속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설화이며 시조는 이를 위해 가공한 인물이라고 보았다.¹⁸⁾ 일본 학자들의 견해는 비록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진행되었지만 그 바탕이 한반도 강점의 합리화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기에 왜곡하여 해석하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금나라 황실의 시조에 관한 연구나 금과 고려의 관계에 대해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다.

금나라 황실의 시조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초기 연구는 기존 일본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금의 시조가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¹⁹⁾ 금의 시조가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학

11) 內藤虎次郎, 「女眞種族の同源傳説」, 『民族と歴史』 6: 1, 1921(內藤虎次郎, 『內藤湖南全集 第8卷』, 筑摩書房, 1969에 재수록).

12) 池內宏, 「金史世紀の研究」,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11, 1924; 池內宏, 「金史世紀の研究」, 『滿鮮史研究—中世 第一冊』, 吉川弘文館, 1933.

13) 田坂興道, 「完顔氏の三祖傳説について」, 『歴史學研究』 8: 6, 歴史學研究會, 1933.

14) 小川裕人, 「三十部女眞について」, 『東洋學報』 24: 4, 東洋協會學術調査部, 1937.

15) 三上次男, 「金室完顔家の始祖說話について」, 『史學雜誌』 52: 11, 1941(三上次男, 『金史研究 3』, 中央公論美術出版, 1973에 재수록).

16) 三上次男, 『金史研究1: 金代女眞社會の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1971; 三上次男, 『金史研究2: 金代政治制度の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1972; 三上次男, 앞의 책, 1973.

17) 윤해동은 기존에 사용된 ‘식민사학(관)’, ‘식민주의 역사학(사관)’, ‘식민지적 사관’ 등의 용어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음과 동시에 용어에 내포된 의미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사관보다는 넓은 의미의 역사학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윤해동, 「식민주의 역사학 연구 시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18) 池內宏, 앞의 논문, 1924; 池內宏, 앞의 논문, 1933.

19) 최근 윤승준은 이전까지의 연구가 역사적 사실을 해명하는 데 치중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금의 시조 및 태조 이전의 제왕들에 대해 문학적으로 고찰한 바가 있다. 윤승준, 「금 태조 및 선대 제왕 설화에 대한 고찰」, 『아시아문화연구』 29,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자들로는 김상기,²⁰⁾ 이동복,²¹⁾ 김위현²²⁾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금의 시조가 가공적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 것은 일본의 식민주의 역사학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족사학(民族史學)²³⁾적 입장에서 금의 시조에 대해 연구를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금나라 황실의 시조가 실존했던 인물로 그 출신지가 ‘고려’ 혹은 ‘신라’라는 것은 12세기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금나라가 우리와 같은 핏줄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식민주의 역사학도 일부 타파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해 연구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달리 이병도는 금 황실의 시조에 대해 당시까지 나왔던 제설들을 분석하고, 시조의 실존여부는 후고(後考)를 요할 문제이지만 당시 여진인 사회에서 금의 시조가 고려인이라 하여 고려를 부모의 방(邦)으로 관념하였던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²⁴⁾

중국에서는 민국시기에 김육불(金毓黻)이 금나라 황실의 시조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²⁵⁾ 그러나 신중국의 성립과 이후 문화대혁명 속에서 중국 사회에서 지식인들이 배척받고, 하방(下放)을 당했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모택동이 사망하고, 덩소평이 정권을 잡은 후인 1978년 중국공산당 제 11차 삼중전회(中共十一屆三中全會)를 기점으로 하여 연구자들이 다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여진(女眞) 및 금대사(金代史)에 대한 연구가 다시 진행됨과²⁶⁾ 동시에 금나라 황실의 시조에 대한 연구도 다시 시작되었다. 중국학자들은 금나라 황실의 시조가 ‘신라’ 혹은 ‘고려’에서 온 것은 맞지만 그는 원래 말갈(靺鞨)이나 여진 사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⁷⁾ 이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나라 황실의 시조에 대해 연구를 함으로써 한반도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려를 인정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왕의 중국에서 발표된 연구 성과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쓰였으나 일본과 달리 금의 시조가 가공의 인물이 아닌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즉, 일본을 제외한 학자들은

20) 김상기, 「금(金)의 시조(始祖)에 대하여」, 『國史上의 諸問題』 5, 국사편찬위원회, 1959.

21) 이동복, 「金の 始祖傳說에 대하여」, 『淸大史林』 3, 청주대 사학회, 1979; 이동복, 「金の 始祖傳說에 대한 一考察」, 『동국사학』 16: 1, 동국사학회, 1981.

22) 김위현, 「完顔部の 女眞統合策」, 『遼金史研究』, 裕豐出版社, 1985.

23) 한영우는 민족사학의 선창자(先唱者)는 신채호(申采浩)이며 이것이 성립되는 직접적 계기는 1905년의 을미조약(乙未條約)이라고 보았다(한영우, 「民族史學의 成立과 展開」, 『국사관논총』 3, 국사편찬위원회, 1989). 이와 달리 이만열은 근대민족주의 역사학이 구한말에 태동하여 1920년대에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했다(이만열, 『韓國近代 歷史學의 理解』, 서문학과 지성사, 1981).

24) 이병도, 『한국사(韓國史): 중세편』, 을유문화사, 1961, 375~376쪽.

25) 김육불(지), 동북아역사재단(역), 『(김육불의) 東北通史(下)』, 동북아역사재단, 2007, 705~706쪽.

26) 중국의 금대사(金代史) 연구현황에 대해서는 김위현, 「금연구」,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육정임, 「중국학계의 송금관계사 연구동향 - “중화민족일체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 최근 중국학계의 연구동향과 그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2010; 테무르, 「북방민족 왕조와 중국역사」,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2010; 류병재, 「중국의 여진(女眞)언어와 여진사(金史) 관련 연구문헌목록」, 『北方文化研究』 3, 북방문화연구소, 2012의 글을 참조.

27) 張博泉, 『金史簡編』, 遼寧人民出版社, 1984; 李治亭, 『東北通史』, 中州古籍出版社, 2003; 孟古托力, 「女眞及其金朝與高麗關係幾個問題考論」, 『滿語研究』, 2000-1; 李學智, 「釋女眞(上)」, 『大陸雜誌』 16: 2, 1958; 慕巖, 「傳說與歷史之間—金代始祖函普研究」, 『牡丹江師範學院學報』, 2012-6.

- (1) 금 황실 시조에 대한 기록이 여진인을 비롯한 송인(宋人), 고려인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²⁸⁾
- (2) 당시 금을 증오했던 송인의 기록에 보이며 시조에 대해 기록한 사서들의 내용이 모두 엇비슷한 점,²⁹⁾
- (3) 또한 수많은 사서에 금의 조상들에 대한 많은 기사(記事)들이 있는 점³⁰⁾

등을 들어 금의 시조가 가공의 인물이 아닌 실존했던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근대 시기 금나라 황실의 시조를 연구했던 일본의 학자들이 한반도 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여 시조의 존재를 부정했으나 금나라 황실의 시조는 실존했던 인물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Ⅲ. 금나라 황실 시조의 출자지 재검토

금나라 황실 시조의 실존 여부에 대한 문제 다음에 살펴야 할 문제가 바로 그는 과연 어디 출신이냐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의 한적 사료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봄으로써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현존하는 기록 가운데 가장 먼저 금나라 황실의 시조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 것은 송의 홍호(洪皓, 1088~1155)가 저술한 『송막기문(松漠紀聞)』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진족의 추장은 **신라인(新羅人)**인데 완안씨(完顔氏)라고 불렀다. 완안(完顔)은 한어(漢語)로 왕(王)이라는 말과 같다. 여진은 연제(鍊祭)하는 일로 인해 수령 자리를 양보하였다. 형제 3명 중에서 그 하나는 숙여진의 추장이 되었으니 만호(萬戶)라 불렸으며 그 하나는 타국으로 갔다.……금나라 주인(金主)의 9대조 이름은 감복(龔福)으로, 경원황제(景元皇帝)로 추시(追諡)되었고, 시조(始祖)라고 불리며, 배우자는 명의황후(明懿皇后)이다.”³¹⁾

이라 하여 시조가 신라인(新羅人)이었다고 기록하였다. 이 외에 금나라 황실의 시조가 신라에서 왔다고 기록한 문헌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이를 분석해보면 그 내용들이 모두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아래의 <표 1>을 살펴보자.

28) 이동복, 위의 논문, 1981.

29) 김위현, 앞의 논문, 1985.

30) 김육불(지), 동북아역사재단(역), 앞의 책, 2007.

31) 『松漠紀聞』: “女眞酋長, 乃**新羅人**, 號完顔氏, 完顔猶漢言‘王’也. 女眞以其練事, 後隨以首領讓之. 兄弟三人, 一爲熟女眞酋長, 號萬戶. 其一適他國. ……金主九代祖名龔福, 追諡景元皇帝, 號始祖, 配曰明懿皇后.”

〈표 1〉 금나라 황실 시조의 신라(新羅) 출자 기록

문헌명	기술 내용
『三朝北盟會編』	卷3, 重和2年正月10日條, “女真其初酋長, 本新羅人, 號完顏氏. 完顏猶漢言王也. 爲首領完顏之兄弟三人, 一爲熟女真酋長, 號萬戶. 其一適他國.” 卷18, 宣和5年6月19日條, “『神麓記』 ³²⁾ 曰: 「女真始祖 <u>捐浦(改作堪布)</u> , 出自新羅, 奔至阿曷胡……」”
『建炎以來繫年要錄』	卷1, 建炎元年正月條, “旻即阿固達, 其先新羅人也(……洪皓『松漠紀聞』云, 女真君長乃新羅人, 號完顏氏. 完顏猶漢言王也. 苗耀『神麓記』云, 女真始祖堪布, 出自新羅, 奔至安春……)”
『建炎以來朝野雜記』	乙集·卷19, 邊防2, 女真南徙, “完顏之始祖 <u>捐浦者</u> , 新羅人, 自新羅奔女真, 女真諸酋推爲首領. 七傳至旻而始大, 所謂阿骨打也.”
『大金國志』	金國初與本末, “或又云, 其初酋長, 本新羅人, 號完顏氏.”
『宋九朝編年備要』	卷28, 徽宗皇帝政和7年條, “女真, 其初部族本新羅人, 號完顏氏.”
『兩朝綱目備要』	卷13, 寧宗嘉定6年8月條, “完顏之始祖 <u>堪浦者</u> , 新羅人, 自新羅奔女真, 女真推爲首領. 七傳至旻而始大, 所謂阿固達也.”
『續編兩朝綱目備要』	卷13, 寧宗嘉定6年8月條, “完顏之始祖 <u>捐浦(因普)者</u> , 新羅人, 自新羅奔女真, 女真諸酋推爲首領. 七傳至旻而始大, 所謂阿固達也.”
『大宋宣和遺事』	元集, “是歲, 女真阿骨打稱帝, 姓王名做旻, 本新羅人, 號完顏氏.”
『文獻通考』	卷327, 四裔考, “又云, 其酋本新羅人, 號完顏氏.”
『異域志』	卷上, 女真條, “始因新羅人完顏氏者奔於國, 遂家焉.”
『釋氏稽古略』	卷4, 甲午條(政和四年), “女真(金也. 世本新羅人. 號完顏氏.)”

위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까지 금나라 황실의 시조가 신라인이었다고 기술한 문헌들의 내용은 홍호가 저술한 『송막기문』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두 『송막기문』의 내용을 보고서 인용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³³⁾ 더불어 금나라 황실 시조가 신라에서 나왔다는 위의 문헌들을 편찬한 사람들 대다수는 송나라 사람들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금의 시조가 고려에서 왔다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사』와 『고려사』에서만 다수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조선 전기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³⁴⁾과 『조선왕조실

32) 남송(南宋) 시대의 문인인 묘요(苗耀, 생몰년 미상)가 저술했다고 알려진 책.

33) 趙永春, 앞의 논문, 2006.

34) 『新增東國輿地勝覽』卷41, 平山南陽府條, “世傳, 昔有平州僧今俊, 遁入女真, 居阿之古村, 是爲金之先. 或曰‘平州僧金幸之子

록』의 양성지가 성종(成宗)에게 올린 글³⁵⁾ 등에도 금나라 황실의 시조에 대해서 기록한 바가 있지만 모두 『고려사』에 쓰인 내용을 다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 즉 현재까지 알려진 당시의 문헌 가운데서 『금사』와 『고려사』를 제외하면 금의 시조가 고려에서 왔다고 기술한 것은 『고려사』의 기록을 옮긴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금나라 황실 시조의 고려(高麗) 출자 기록

문헌명	기술 내용
金史	1) 卷1, 世紀, “金之始祖諱函普, 初從高麗來, 年已六十餘矣。兄阿古迺好佛, 留高麗不肯來, 曰:「後世子孫必有能相聚者, 吾不能去也。」獨與弟保活里俱。始祖居完顏部僕幹水之涯, 保活里居耶懶。其後胡十門以曷蘇館歸太祖, 自言其祖兄弟三人相別而去, 蓋自謂阿古迺之後。石土門·迪古乃, 保活里之裔也。及太祖敗遼兵于境上, 獲耶律謝十, 乃使梁福·幹答刺招諭渤海人曰:「女真渤海本同一家。」蓋其初皆勿吉之七部也。”
	2) 卷66, 胡十門列傳, “胡十門不肯從, 召其族人謀曰:「吾遠祖兄弟三人, 同出高麗, 今大聖皇帝之祖入女直, 吾祖留高麗, 自高麗歸于遼。吾與皇帝皆三祖之後。」”
	3) 卷107, 長行信列傳, “行信奏曰:「按『始祖實錄』止稱自高麗而來, 未聞出於高辛。」”
	4) 卷60, 交聘表上, “金人出於高麗, 始通好為敵國, 後稱臣。”
高麗史	a. 卷13, 睿宗世家, “[4年6月]庚子, 御宣政殿南門, 引見襄弗史顯等六人, 宣問來由, 襄弗等奏曰, 「昔我太祖盈歌嘗言, 「我祖宗出自大邦, 至于子孫, 義合歸附。」今太祖為雅東亦以大邦為父母之國。在甲申年間, 弓漢村人不順太祖指諭者, 舉兵禦之, 國朝以我為犯境, 出兵征之, 復許修好。故我信之, 朝貢不絕, 不謂去年, 大舉而入, 殺我老倪, 置九城, 使流亡靡所止歸。故太祖使我來請舊地。若還許九城, 使安生業, 則我等告天為誓, 至于世世子孫, 恪修世貢, 亦不敢以瓦礫, 投於境上。」王慰諭, 賜酒食。”
	b. 卷14, 睿宗世家, “[10年 正月] 或曰:「昔我平州僧今後, 遁入女真, 居阿之古村, 是謂金之先,」或曰:「平州僧金幸之子克守, 初入女真阿之古村, 娶女真女, 生子曰古乙太師。古乙生活羅太師, 活羅多子。長曰劬里鉢, 季曰盈歌, 盈歌最雄傑, 得衆心。盈歌死, 劬里鉢長子為雅束嗣位, 為雅束卒, 弟阿骨打立。」”
	c. 卷14, 睿宗世家, “[12年3月]癸丑, 金主阿骨打遣阿只等五人, 寄書曰:「兄大女真金國皇帝, 致書于弟高麗國王。自我祖考, 介在一方, 謂契丹為大國, 高麗為父母之邦, 小心事之。契丹無道, 陵轢我疆域, 奴隸我人民, 屢加無名之師。我不得已拒之, 蒙天之祐, 獲殄滅之。惟王許我和親, 結為兄弟, 以成世世無窮之好。」仍遣良馬一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나라 황실 시조가 ‘신라인’이라 기술된 것은 홍호가 『송막기문』을 저술한 이래 그의 영향을 받은 송나라 사람들과 후인들이 저술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금나라와 고려의 정사(正史)에서는 금나라 황실의 시조가 ‘고려’ 출신이라고 기술했음을 알 수 있다.

금나라 황실 시조의 출신에 대해 한적 사료들에서 각기 신라와 고려로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김옥불(金毓黻)은 시조 함보는 신라인으로 그가 완안부로 들어간 시기가 요나라 초로 아직 신라가 멸망하지 않았고 왕씨

克守, 初入. 女真, 娶女真女, 生子曰古乙. 金祖阿骨打, 乃其後也. 按『金史』, 金之始祖諱函普, 初從高麗來, 年已六十餘矣. 兄阿古乃好佛, 留高麗不肯從, 與弟保活里俱. 函普居完顏部僕幹水之涯, 娶年六十未嫁之女, 生二男長曰烏魯, 次曰幹魯. 遂為完顏部入則金之先. 乃高麗人無疑. 但今俊克守未知就為函普無所考.”

35) 『朝鮮王朝實錄』卷134, “(成宗12年 10月 17日)南原君梁誠之上言曰, ……金則本我國平州之人, 稱我為父母之國, 尹灌築九城之地, 以先春嶺為界, 終金之世, 兵不相加…….”

고려가 흥기했던 시기이므로 신라 혹은 고려라고 기술했다고 보았다.³⁶⁾ 김위현도 김육불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시조는 신라인으로 시기상 나말여초(羅末麗初)였던 까닭으로 이와 같이 기록하였다고 보았다.³⁷⁾ 즉, 나말여초라는 시기에 시조가 여진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출신을 신라와 고려로 제각기 서술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김위현과 김육불이 시조가 살던 시기를 나말여초로 보는 것은 대체로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여 나온 추측에 불과할 뿐 엄밀한 논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육불과 김위현이 주장한대로 금나라 황실의 시조는 신라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 (1) 『송막기문』에 금나라 귀족층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
- (2) 송나라에서 수차례 제정된 편칙(編勅)에 고려와 병기된 ‘신라’가 여진을 가리킨다는 점,
- (3) 여진지역에 ‘신라산’이란 지명이 보이는 점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 황실의 시조가 신라에서 왔다고 기술한 한적 사료들은 대체로 홍호가 저술한 『송막기문』의 내용을 보고 인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송막기문』을 저술한 홍호란 인물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는 1129년 정강의 변(靖康之變)으로 금나라에 끌려간 휘종(徽宗)과 흠종(欽宗) 등의 반환을 교섭하기 위하여 금(金)으로 갔다. 그러나 금에서 억류되어 15년간을 금나라에서 살다가 1143년에 남송(南宋)으로 돌아왔다. 그가 금에 억류되었던 15년 가운데 상당 기간은 냉산(冷山)에서 보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금나라 완안부의 귀족인 완안희윤(完顔希尹)³⁸⁾의 자식들을 가르치며 완안희윤의 가족들과 교류를 맺었다. 또한 희윤을 통해 다른 금나라 귀족들과도 교류를 했는데 이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토대로 『송막기문』을 저술했다.³⁹⁾ 즉, 완안희윤의 가족들을 비롯한 당시 금나라의 귀족들에게 금나라 황실의 시조가 신라인이라 전해들었고, 이를 『송막기문』에 기술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금나라의 귀족들은 금나라 황실의 시조를 고려가 아닌 신라인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홍호가 『송막기문』을 작성하기 이전부터 송나라 사람들은 이미 여진(女眞) 지역을 신라(新羅)로 비정하기도 했는데 이는 송나라에서 수차례 제정된 ‘편칙(編勅)’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나라의 정치가이자 시인으로도 잘 알려진 소식(蘇軾, 1036~1101)의 문집에는 ‘상려(商旅)들이 외국과 왕래하는 것을 금

36) 김육불 지음, 앞의 책, 2007, 706쪽.

37) 김위현 앞의 논문, 1985, 137쪽.

38) 완안희윤(完顔希尹, ?~1140)은 완안부(完顔部) 사람으로 귀족계층인 환도(歡都)의 아들이다. 여진 이름은 곡신(谷神)이며, 울실(兀室), 오실(悟室), 골사(骨舍)로도 번역되어 사용된다. 태조 때 여진문자를 만들 것을 명령받아 천보(天輔) 3년(1119)년에 완성했다. 후세에서는 그것을 여진대자(女眞大字)라고 칭한다. 천보 6년(1122)에 완안종한(完顔宗翰)을 따라 요나라 군대를 북안주(北安州)에서 대파하고, 요나라 천조제(天祚帝)를 추격했으며, 권서남서북양로도통(權西南西北兩路都統)으로 임명되었다. 태종 때에는 원수우감군(元帥右監軍)으로 임명되어 송나라를 공격했으며, 송나라 황제를 사로잡아 귀환했다. 또 완안종한을 따라 송나라 강왕(康王)인 조구(趙構)를 양주(楊州)에서 축출했다. 태종이 죽자 그는 희종을 옹립했으며, 지위가 상서좌승상겸시중(尙書左丞相兼侍中)에 이르렀다. 천권(天眷) 2년(1139)에 진왕(陳王)에 봉해졌으며, 완안종필(完顔宗弼) 등과 함께 완안종반(完顔宗磐), 완안종준(完顔宗隲) 등 제왕(諸王)들을 살해했다. 그러나 그 자신도 다음해인 1140년 희종에 의해 처형되었다. 천덕(天德) 3년(1151)에 예왕(豫王)으로 추봉(追封)되었다.

39) 홍호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外山軍治, 「松漠紀聞の著者洪皓について」, 『金朝史研究』, 東洋史研究會, 1964를 참조.

지해주실 것을 간청하는 상소(乞禁商旅過外國狀)라는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은 해상(海商)들이 고려에 왕래하는 것을 금지해왔던 편칙이 신종(神宗, 재위 1067~1085) 시기에 와서 크게 완화된 점을 비판하고 이를 다시 금지시킬 것을 주청하는 내용이다. 이 문장에는 송나라 황제들의 연호를 딴 〈경력편칙(慶曆編勅)〉, 〈가우편칙(嘉祐編勅)〉, 〈희녕편칙(熙寧編勅)〉, 〈원우편칙(元祐編勅)〉이 들어있다. 그리고 여기서 고려와 함께 신라(新羅)라는 명칭이 병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⁰⁾ 편칙의 내용들은 『송사』⁴¹⁾나 『속자치통감장편』⁴²⁾ 등에도 똑같이 남아있다.

송나라에서 제정된 편칙들 가운데에서 시행된 시기가 가장 이른 〈慶曆編勅〉으로 1035년에서 1043년까지이다. 즉, 가장 이른 시기의 편칙도 작성된 시기가 최소 신라가 망한지 100여년이 흐른 뒤이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신라’라는 명칭은 우선 935년까지 한반도에 있던 신라를 가리키다 볼 수 없다. 더불어 신라라는 명칭의 앞에 ‘고려’라는 명칭이 병기된 것을 생각해 볼 때 고려하면 ‘신라’라는 명칭이 당시 한반도에 있던 ‘고려’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편칙에서 ‘신라’라는 명칭은 ‘고려’의 다음에 위치해 있으며 신라의 뒤에는 현 중국의 산둥반도(山東半島)에 위치한 등주(登州,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봉래(蓬萊) 지역) 및 래주(萊州, 지금의 산둥성 래주시(萊州市) 지역)라는 지명이 나온다. 편칙의 내용과 당시의 항로를 따져봤을 때⁴³⁾ 편칙에 언급된 이들이 사용한 항로는 아래 〈그림 1〉 좌측의 (1)번 혹은 (2)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볼 때 편칙에 기록된 신라 지역은 아래 〈그림 1〉의 우측에 보이는 현재의 요녕성(遼寧省) 일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당시 이 지역은 요나라와 여진세력이 있었던 곳으로 신라는 여진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다.⁴⁴⁾

더불어 『송사』에는 1119년 송나라로 왔던 금나라의 사신들이 송에 입조했을 때 신라에서 왔던 사인(使人)을 대하던 예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⁴⁵⁾ 이 내용은 『대금국지』,⁴⁶⁾ 『삼조북맹회편』,⁴⁷⁾ 『구조편년비

40) 『蘇軾文集』卷31, 乞禁商旅過外國狀, “……除已具處置畫一利害聞奏外, 勘會熙寧以前「編勅」, 客旅商販, 不得往高麗・新羅及登・萊州界, 違者, 並徒二年, 船物皆沒入官. ……「元祐編勅」亦只禁往新羅. ……一, 「慶曆編勅」: 「客旅於海路商販者, 不得往高麗・新羅及登・萊州界. ……一, 「嘉祐編勅」: 「客旅於海道商販者, 不得往高麗・新羅及至登・萊州界. ……「熙寧編勅」……自海道入界河, 及往北界高麗・新羅并登・萊州界商販者, 各徒二年. ……「元祐編勅」……或乘船自海道入界河, 及往新羅・登・萊州界者, 徒二年, 五百里編管. ……堪會元豐八年九月十七日指揮, 最為害事, 將祖宗以來禁人往高麗・新羅條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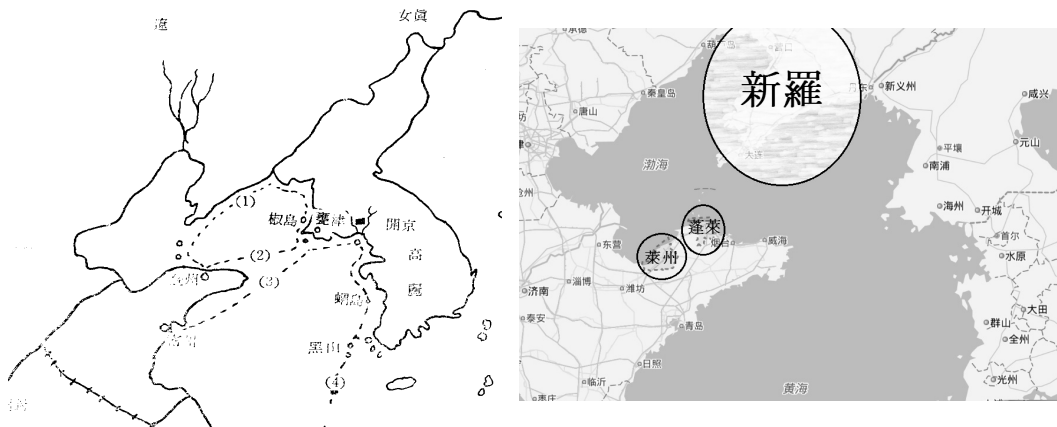
41) 『宋史』卷186, 食貨志8, “雍熙中, ……商人出海蕃國販易者, 令並詣兩浙市舶司請給官券, 違者沒入其寶貨. ……元祐三年……, 賈人由海道往外蕃, 令以物貨名數并所詣之地. 報所在州召保, 毋得參帶兵器或可造兵器及違禁之物, 官給以券. 擅乘船由海入界河及往高麗・新羅・登・萊州境者, 罪以徒, 往北界者加等.”

42) 『宋史』卷451, 元祐五年, 十一月, 己丑, “即不請公據而擅乘船自海道入界河及往高麗・新羅・登・萊州界者徒二年, 五百里編管, 往北界者, 加二等, 配一千里.”

43) 송과 고려의 해상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제, 「麗宋交易的 航路와 船舶」, 『역사학보』204, 역사학회, 2009를 참조.

44) 김영제는 「三朝北盟會編」에서 신화(宣和) 2년이었던 1120년에 송나라에서 ‘習魯’라는 신라사절을 접견했는데 이 인물이 여진 사람이라는 점과 『玉海』卷172, 熙寧同文館 “都亭西驛以待西蕃・阿黎・于闐・新羅・渤海.”란 기록을 통해 송나라가 신라가 사라진 뒤에도 신라가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김영제, 「北宋 神宗朝의 對外交易 政策과 高麗」, 『東洋史學研究』115, 동양사학회, 2011), 『大金國志』의 기록에서 1119년에 금의 사신을 신라인이 왔던 것으로 했다는 기록을 토대로 여진은 금나라가 성립하기 전까지 국가를 형성하지 못했기에 송나라가 이전부터 여진지역을 신라라 비칭하고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금을 신라라 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김영제, 「교역에 대한 宋朝의 태도와 高麗海商의 활동 - 高麗文宗의 對宋 入貢 배경과도 관련하여 -」, 『역사학보』213, 역사학회, 2012).

45) 『宋史』卷119, 禮志2, “宣和元年, 金使李善慶等來, 遣直祗閣趙有開偕善慶等報聘. 已而金使復至, 用新羅使人禮, 引見宣政殿, 徽宗臨軒受使者書.”



〈그림 1〉 (좌) 송과 고려의 항로⁴⁹⁾ (우) 新羅(女眞) 추정 지역

요』⁴⁸⁾ 등에도 비슷하게 남아있어 송나라로 온 금나라의 사신을 신라인이 왔던 것으로 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 내용들을 통해 볼 때 당시의 송나라 조정이 금나라 사신을 신라 사인의 예로 대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송나라 사람들이 당시 여진을 신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들에 대한 예를 신라 사인에 대한 예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宋史』 卷119, 禮志2를 통해 당시 송나라는 자신들의 조정을 찾아온 여타 국가들의 사신들에게 그들 국가를 맞았던 기존의 예로서 대했는데 유일하게 금나라의 사신만을 신라 사인의 예로서 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여진을 대하던 예나 당시 여타 국가들에게 사용하던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망한지 거의 200년이 되어가는 국가의 사인에게 대했던 예를 다시 사용한 것은 여진을 신라와 동일시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당시 여진 지역에 있던 ‘신라산(新羅山)’이란 지명이 보인다는 점이다. 당시 여진 지역에 있던 신라산이란 지명에 대해서는 허항중(許亢宗)이 휘종 선화(宣和) 7년(1125)에 금의 태종(太宗)이 보위에 오른 것을 축하하기 위해 동서(童緒)를 보좌해서 금으로 갔을 당시의 여정을 기록한 『선화을사봉사금국행정록(宣和乙巳奉使金國行程錄)』⁵⁰⁾에 남아 있다. 그 내용을 보면

46) 『大金國志』 卷1, 紀年1, 太祖武元皇帝上, “(天輔三年)良嗣之來使也, 大概議夾攻遼, 使金人取中京, 宋朝取燕京, 許之歲幣, ……仍遣使偕來, 止作新羅人來朝見.” 이와 달리 『欽定重訂大金國志』에서는 같은 내용이 천보 4년 조에 기록되어 있다. 『欽定重訂大金國志』 卷1, 紀年1, 太祖武元皇帝上, “(天輔四年)良嗣之來使也, 大概議夾攻遼國, 使金取中京, 宋取燕京, 帝許之歲幣, ……仍遣使偕至宋, 止作新羅人朝.”

47) 『三朝北盟會編』 卷4, 宣和二年, 九月七日, 乙巳, “止作新羅人使引見, 入見於崇政殿, 上臨軒引習魯(改作錫喇薩魯)等捧國書以進見, 訖而退.”

48) 『九朝編年備要』 卷29, “(庚子宣和二年)九月金使來. 趙良嗣至上京與阿固達議約, 大抵以燕本漢地. ……仍遣使偕來, 止作新羅人來朝見.”

49) 〈그림 1〉 좌측의 송과 고려의 항로도 는 김위현, 『麗宋關係와 그 航路考』, 『關大論文集』 6: 1, 관동대학교, 1978에서 발췌함.

50) 『선화을사봉사금국행정록』은 달리 『許奉使行程錄』이라고도 하였는데 그 전문은 『대금국지』 卷40과 『삼조북맹회편』 卷20에 전하고 있다. 더불어 『삼조북맹회편』과 『송사』의 내용을 통해 허항중이 선화(宣和) 7년(1125)에 태종이 보위에 오른 것을

제29정 함주(咸州)⁵¹⁾로부터 90리(里)를 가면 동주(同州)에 이른다.

함주(咸州)로부터 40리를 가면 숙주(肅州)에 이르고 다시 50리를 가면 동주(同州)⁵²⁾에 이른다. 함주를 떠나 곧바로 북쪽으로 가면 평지에 사람들이 취락을 이루고 살고 있다. 경작지가 넓고, 땅에는 기장을 널리 재배하고 있다. 동쪽으로 큰 산이 보이는데, 금나라 사람들이 **신라산(新羅山)**⁵³⁾이라고 한다. 산의 내부는 깊고 멀며 도로가 없다. 그 사이에서는 인삼과 백부자(白附子)가 산출된다. 산 속 깊은 지역은 고려와 더불어 경계를 이룬다. 산 아래 길까지 30리 정도이다.⁵⁴⁾

이라 하여 신라산이 함주에서 숙주로 가는 길목에 보이는 곳에 있던 큰 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⁵⁾ 허항중이 『선화을사봉사금국행정록』에 기록한 신라산에 대해서는 이미 청나라 시대에 편찬된 전적들에도 상당히 많이 언급됨과 동시에 그 위치에 대해 많은 고증을 하여 철령(鐵嶺)과 개원(開原)의 사이에 있던 것으로 보았다.⁵⁶⁾ 상당수의 조선(朝鮮) 문인들도 신라산에 대해 언급하며 고증을 하였는데 우선 이덕무(李德懋)는 동주와 숙주는 마치 연(燕)과 월(越)처럼 동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신라산은 없다고 보았다.⁵⁷⁾ 박지원(朴趾源)도 마찬가지로 이를 허튼 소리라고 하며 동주와 숙주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금나라 사람들이 신라산이라 가리킨 곳이 고구려와 접경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⁵⁸⁾ 그러나 남송(南宋) 순우(淳祐) 7년(1247)년에 제작되었다고 알려진 지리도(地理圖)를 통해 동주와 숙주의 위치가 가까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덕무

축하하기 위해 사행을 떠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宣和七年, 正月二十日壬辰, 詔差奉議郙·尚書司·封員外郎許亢宗, 充賀大金皇帝登寶位, 國信使·武義大夫·廣南西路廉訪使者童緒副之, 管押禮物·官鍾邦直. 宣和乙巳奉使行程錄…….”; 『宋史』卷22, 徽宗本紀4, “秋七月戊子, 遣許亢宗賀金國嗣位”).

- 51) 함주(咸州)는 『요사』에서 본래 고구려(高麗)의 동산현으로 한나라 후성현의 북쪽이자 발해 용천부 남쪽에 위치해 있다고 하였다(『遼史』卷38, 地理志2, “本高麗銅山縣地, 渤海置銅山郡. 地在漢候城縣北, 渤海龍泉府南”).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함주를 현재의 요녕성 개원시(開原)에 위치한 개원노성(開原老城)으로 보고 있다.
- 52) 『遼史』卷38, 地理志2, “[동주(同州)] 본래 한나라의 양평현(襄平縣) 땅이었는데, 발해가 동평채(東平寨)로 삼았다. 태조가 주를 설치하고 진동군(鎭東軍)을 두었으며, 나중에 이름을 바꾸었다(同州) 漢襄平縣地, 渤海爲東平寨. 太祖置州, 軍曰鎭東, 後更名.”]
- 53) 『靖康稗史箋證』卷1, “按新羅山未詳, 疑或有誤記.”라 하여 송나라 시대에 『靖康稗史箋證』을 편찬한 학암(確庵)과 내암(耐庵)은 ‘신라산’이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기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하였다.
- 54) 『大金國志』卷40 許奉使行程錄, “第二十九程, 自咸州九十里至同州. 自咸州四十里至肅州, 又五十里至同州. 離咸州即北行, 州地平壤, 居民所在成聚落. 新稼殆遍, 地宜稼黍. 東望大山, 金人云, 此新羅山. 山內深遠, 無路可行. 其間出人參·白附子. 深處與高麗接界, 山下至所行路可三十里.”
- 55) 신라산의 위치에 대해서 허인옥은 함주는 현재의 개원시(開元市)이며 함주에 있던 평야 지대는 현재 중국의 동북평원(東北平原)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라산은 간도(間島)지역에 있다고 보았다. 허인옥, 「高麗 中期 東北界에 대한 考察」, 『白山學報』59, 백산학회, 2001.
- 56) 『遼史拾遺』卷13, 地理志2, “同州鎭安軍下節度 新羅山補, 『許亢宗奉使行程錄』曰, 第二十九程至同州, 州地平壤, 東望大山, 遼人云, 此新羅山. 內深遠, 無路可行. 其間出人參·白附. 深處與高麗接界”; 『欽定滿洲源流考』卷9, 疆域2, “[新羅]『奉使行程錄』, 自咸州北行至同州, 東望大山, 即新羅山. 深處與高麗接界. 按遼咸州, 即金咸平府, 同州爲金銅山縣, 俱在今鐵嶺開原之間. 東至威遠堡, 即吉林界. 南至奉天, 即唐時高麗界. 開原即漢時夫餘界. 百濟之舊國也. 『通考』謂新羅西北界, 出高麗百濟之間者, 應即指此”; 『欽定盛京通志』卷28, 山川4, “[新羅山]未詳許亢宗奉使行程錄, 自咸州北行九十里至同州, 東望大山, 即新羅山. 深處與高麗接界. 按遼咸州, 即今咸平府. 同州今爲銅山郡, 俱在今鐵嶺開原之間. 東至威遠堡, 即吉林界. 南至奉天即唐時高麗界, 開原即漢時夫餘界, 百濟之舊國也. 『通考』謂新羅西北界出高麗百濟之間者, 即指此.”
- 57) 『靑莊館全書』卷60, 盡葉記7, “行程錄. 許亢宗撰. 自同州四十里, 至肅州, 東望大山. 金人云, 此新羅山, 其中產人蔘白附子, 與高句麗接界. 案同州肅州, 已是燕越, 而稱新羅山, 高麗界者, 既不孟浪. 許亢宗, 公然見欺.”
- 58) 『燕巖集』卷15, 熱河日記, 銅蘭涉筆, “許亢宗行程錄, 自同州四十里, 至肅州, 東望大山, 金人云此新羅山. 其中產人蔘白附子, 與高句麗接界, 此妄也. 雖未知同州肅州在於何處, 而金人所指新羅山, 安得與高句麗接界. 可謂朔南實遷.”

와 박지원의 고증은 잘못된 것이다(그림 2) 참조). 이들과는 달리 한치윤⁵⁹⁾과 정약용⁶⁰⁾ 등은 신라산을 장백산(長白山)이라고 보았다.⁶¹⁾

그러나 『선화을사봉사금곡행정록』에 기록된 여정대로라면 허항종이 숙주와 동주를 지나서 간 곳은 신주(信州)이므로 동주는 숙주의 북쪽에 위치해있어야 한다.⁶²⁾ 그러나 지리도에는 동주가 숙주의 밑으로 되어 있기에 동주를 숙주의 남쪽에 표시한 지리도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續資治通鑑長編』에는 동주(同州)가 동주(銅州)라고 되어 있으며⁶³⁾ 동주(銅州)는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 통주(通州)임을 확인할 수 있다.⁶⁴⁾ 이를 통해볼 때 지리도를 제작했을 때 동주(同州)와 통주(通州)의 음가(音價)가 비슷하여 헛갈려 잘못 표기했다고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림 2〉 지리도(隆理圖)에 표시된 함주, 동주, 숙주

59)『海東釋史續』卷13,山水1,(白頭山)行程錄,自同州四十日至肅州。東望大山,金人云,此新羅山。其中產人蔘·白附子。與高句麗接界。謹按此卽,長白山也。”

60)『大東水經』卷1，淶水1，(長白山)田靑案漠北行程錄。自同州四十餘日。至肅州。東望大山。金人云。此新羅山。其中產人蔘。白附子。與高麗接界。文止此。其云。新羅山者。亦長白山之謂也。”

61) 이에 대해 채태형은 ‘이렇게 놓고 보면 금나라사람들이 조선의 조종의 산인 백두산을 신라산 또는 고려산, 조선의 산이라고 하였을 수 있다. 금나라에서 백두산을 신성시한 것은 바로 그 산이 자기 나라 시조가 난 곳이기 때문이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금나라사람들이 백두산을 신성시하고 숭상한 까닭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채태형, 『발해사 연구7(역사지리3)』, 북한사회과학원, 1999). 그러나 『금사』에 의하면 당시 장백산은 상경 회령부에 있었으므로『金史』卷24, 地理志上, “會寧倚, 與府同時置. 有長白山…….” 개원과 철령 사이에 있다는 신라산과의 위치가 부합되지 않는다.

(62) 『大金國志』卷40, 許奉使行程錄, “第二十九程, 自咸州九十里至同州, ……第三十程, 自同州三十裏至信州。”

63) 『遼史』 卷11, 聖宗本紀2의 교감기(校勘記) 9번 참조.

(64) 김위현, 「地名의 誤例」, 『遼金史研究』, 서울: 裕豐出版社, 1985, 71쪽.

12세기 초 여진 지역에 있었다는 신라산이란 지명은 비단 이곳에만 있던 지명은 아니다. 가정(嘉定) 15년(1222)에 편찬되기 시작하여 이듬해인 1223년에 완성된 『가정적성지(嘉定赤城志)』를 보면 ‘임해(臨海)에 신라산이 있었으며 선거(仙居)의 만죽산(萬竹山) 정상을 신라라고 하였다’고 한다.⁶⁵⁾ 이 지역들은 현재의 절강성(浙江省) 태주시(台州市)에 있는 지역들로 예로부터 한반도와 밀접한 해상 교류가 있던 곳으로 신라촌(新羅村)이 형성되어 있던 지역이었다.⁶⁶⁾ 또한 일본 대판(大阪)의 북정현(福井縣) 금장정(今庄町)에 있는 신라신사(新羅神社)에 전해오는 고문서에는 “……신로귀천(信露貴川)은 신라산 기슭(新羅山麓)에서 발한다.”는 기록이 전해져오고 있다고 한다.⁶⁷⁾ 절강성 태주시에 있는 신라산과 일본 대판에 있었다는 신라산은 모두 신라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살던 곳이다. 즉, 신라산이라는 산명은 신라인들이 외국에 나가 모여 살던 곳에 있는 산 가운데 하나를 자신들의 나라 이름인 ‘신라’를 붙여 부른 명칭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⁶⁸⁾ 그렇다면 당시 함주의 북동쪽에 있던 신라산⁶⁹⁾도 신라의 유민들이 그 주변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생긴 지명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신라인 혹은 신라유민들이 모여 살면서 신라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라산(新羅山)’을 두고서 이 주변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⁷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금나라의 시조는 신라인 혹은 신라와 연관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조는 함보(函普)라는 범명(法名)이나 직책을 지닌 사람⁷¹⁾으로 여진의 완안부 여성과의 혼인을 함으로써 금나라 황실의 시조가 되었다.⁷²⁾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송나라 사람들이 여진족과 왕래를 하면서

65) 『嘉定赤城志』 卷19, 山水門1, “臨海 新羅山, 在縣西三十里, 與八疊嶺相望。鳥道巘岈, 多野果, 土人利之”; 『嘉定赤城志』 卷22, 山水門4, “仙居 萬竹山, 在縣西南四十五里, 絕頂曰新羅。”

66) 박현규, 「台州地區 新羅 유적과 지명에 관한 고찰」, 『신라문화』 31,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8.

67) 김달수(지), 배석주(역), 『오오사카부의 한국문화 유적』, 『일본 속의 한국문화 유적을 찾아서3』, 대원사, 1999.

68) 신라산(新羅山)이란 지명이 남아있다고 모두 신라와 연결시킬 수는 없음을 복건성 민서(閩西)에 남아있는 신라산이란 지명을 통해 알 수 있다. 박현규, 「중국 福建 남부 新羅 명칭 고찰」, 『신라문화』 28,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6.

69) 함주 북동쪽에 있는 신라산의 깊숙한 지역은 고려와 더불어 경계를 이룬다고 되어 있는데 『遼史』 卷38의 신주(信州, 요녕 懷德縣 부근) 창성군에 관한 기록을 보면 ‘요나라 성종이 이 땅이 고려와 이웃하고 있다하여 개태 초년(1012)에 주를 설치하고 포로로 잡은 한나라 민호들로 채웠다’는 기록이 있다(『遼史』 卷38, 地理志2, “(東京道)信州, 彰聖軍, 下, 節度. 本越喜故城. 渤海置懷遠府, 今廢. 聖宗以地鄰高麗, 開泰初置州, 以所俘漢民實之”). 신주가 함주의 북쪽인 점을 보면 혹시 신라산이 신주 창성군과 함주의 사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70) 당시 신라인들이 실제 이곳에 모여 살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증해주는 사료는 없다. 그러나 발해와 신라 사이에 신라도가 개설되어 757년 이후로 양국은 활발한 교섭을 벌이기 시작했고(송기호, 「東아시아 國際關係 속의 渤海와 新羅」, 『韓國史市民講座』 5, 일조각, 1989), 『요사』의 기록을 통해 귀주(歸州: 요녕 蓋平縣)나 고주(高州: 내몽골 赤峰市 동북) 등지에 신라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遼史』 卷15, 聖宗本紀6, “(開泰元年十二月)歸州言其居民本新羅所遷, 未習文字, 請設學以教之, 詔允所請”; 『遼史』 卷39, 地理志3, “(中京道, 高州)三韓縣. 辰韓為扶餘, 弁韓為新羅, 馬韓為高麗. 開泰中, 聖宗伐高麗, 俘三國之遺人置縣. 戶五千”). 이는 신라인 혹은 신라 유민들이 발해와 요나라의 곳곳에서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신라산이 있던 곳에서도 신라인 혹은 신라 유민들이 정착해 살고 있지 않았나 유추해 볼 수 있다.

71) ‘함보(函普)는 문현마다 공포(捐浦), 감복(龔福), 감포(堪浦)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티베트어 켄보(ཁེན་པོ་, mkhan bo, Wylie의 전사체계에 따라 전사함)를 음차(音借)하여 기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켄보(ཁེན་པོ་)는 티베트 불교에서 사원의 교학담당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고려사』에서 승려 금준(今俊 혹은 金俊)나 승려 김행(金幸)의 아들 김극수(金克守)가 금의 시조라고 한 이유도 실제 금의 시조가 불교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적에서 함보라고 기술한 것은 그의 본명이 아니라 그가 불교도로써 받은 범명(法名) 혹은 그 지위가 켄보였기 때문으로 위와 같이 기술한 것이라 추측된다.’

72) 이후 여진의 후신인 만주족의 청나라 건륭 연간에 편찬된 『欽定滿洲源流考』에도 금나라 시조가 신라인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아니며 국호도 신라왕의 성인 금(金)으로 한 것이라고 보았다(『欽定滿洲源流考』 卷7, 部族7, “以史傳按之, 新羅王金姓相傳數十世, 即金之自新羅來無疑, 建國之名, 亦應取此”). 이와 달리 성호 이익(李瀾)은 완안(完顔)이 왕(王)이라는 것은 고려

알게 됨으로써 여진을 신라와 동일시하였던 것으로 이해해야한다. 완안부의 여성이 노인인 시조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그의 지식수준이나 향유했던 문화 수준 등이 당시의 완안부보다 높았기에 그를 통해 자신들을 발전할 기회로 삼기 위했을 것으로 사료된다.⁷³⁾ 더불어 여진족이 신라인을 시조로 내세운 것은 이미 국가를 경영해본 경험이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앞섰던 신라를 내세움으로써 여진족이 미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치나 경제적인 방면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Ⅳ. 금 시조의 고려 출자설에 관한 새로운 견해

위에서 금나라 황실의 시조가 신라인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시조가 신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나라의 정사인 『금사』와 고려의 정사인 『고려사』에서는 시조가 고려에서 왔다고 기술한 것일까? 이는 각기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우선 『금사』에 기록된 시조의 출신이 고려라는 것은 삼상차남(三上次男)이 주장한 바와 같이 왕건이 세운 고려가 아닌 주몽이 세운 고구려를 가리켰을 가능성이 높다. 삼상차남은 금의 시조에 관한 기록은 금나라 황실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성립한 거짓으로 고대 만주지역의 대국인 고구려 후예사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다.⁷⁴⁾ 『금사』에서 고구려를 고구려라 기술치 않고, 고려라고 기술한 이유는 이미 고구려라는 국호를 고려라고 관용적으로 기술하던 것을 답습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몽이 세운 고구려라는 국명에 대해 남북조(南北朝) 시대의 역사서에서 이미 고구려와 고려라는 국호가 함께 쓰이기 시작했으며 수(隋)·당(唐) 이후부터는 고구려라고 쓰인 사서는 전무하며 고려라고 기술하였다.⁷⁵⁾ 즉, 『금사』에서도 이를 답습하였기 때문에 고구려를 고려라고 기술하게 된 것이다.⁷⁶⁾ 그리고 금사에 시조의 출신을 고려로 기술하며 고구려 후예사상을 표현하게 된 것은 발해 유민들과의 융합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⁷⁷⁾

발해는 고구려의 뒤를 이어서 건국된 나라로써 고구려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스스로를 고려라고 일컬었

의 성을 따른 것 하다고 보았다(『星湖僊說』 卷2, “『염주집(弇州集)』에 보면 “완안은 곧 왕(王)의 성(姓)이다.” 하였으니, 아마 고려의 성을 따른 듯하다”). 김위현은 ‘시조가 신라유민으로 신라왕실이 고려에 귀부하는 것을 반대하고 천사한 사람으로 상당한 실력자인 것으로 생각된다.’ 보았다(김위현, 「금(金)건국과 발해유민 -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토론 -」, 『고구려발해연구』 29, 고구려발해학회, 2007, 450쪽).

73) 『金史』에서 그가 일명 ‘우마속범(牛馬續范)’을 만들어 여진사회를 안정시켰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여진 사회는 기초적인 법률도 제대로 제정돼있지 않은 상당히 낙후된 사회였으며 시조를 통해 이를 극복한 것을 알 수 있다. 『金史』 卷1, 世紀 참조.

74) 三上次男, 앞의 논문, 1941. 이동복은 삼상차남(三上次男)의 주장에 대해 별로 취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지만, 이는 금시조의 출자지인 신라와 고려를 같은 선상에 놓고 해석했기 때문이다(이동복, 앞의 논문, 1981).

75) 정구복, 「高句麗의 ‘高麗’ 國號에 대한 一考 - 三國史記의 기록과 관련하여 -」, 『역사와 담론』 19·20, 호서사학회, 1992, 44쪽. 이외 고구려는 삼한, 구중, 현토, 동이 등의 다양한 별칭이 사용되기도 하였다(최진열, 「唐代 高句麗 표기 기피현상 - 隋唐 墓誌銘의 國名 표기 분석을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논총』 38, 동북아역사재단, 2012.).

76) 『金史』 卷135, 高麗列傳, “唐初, 靺鞨有粟末·黑水兩部, 皆臣屬於高麗. 唐滅高麗……女直雖舊屬高麗, 不復相通者久矣.”라는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금사』에서도 고구려를 고구려가 아닌 고려로 기술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77) 三上次男, 앞의 논문, 1941.

다.⁷⁸⁾ 926년 거란의 야율아보기에 의해 오랜 수도였던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가 무너지면서 발해도 무너졌지만 요나라에 속한 뒤에도 금이 건국되는 1115년까지 약 200년이란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요에 대한 투쟁과 부흥운동을 이어나가고 있었다.⁷⁹⁾ 금이 요를 한창 공격하던 1116년 정월에는 고영창이 요동을 중심으로 발해 유민 세력을 규합하여 칭제건원(稱帝建元)을 할 정도로 발해 유민들은 요와 융합되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시금 발해를 세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금은 고영창이 반란을 일으킨 초기에 그를 도와 요를 공격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다가 급속히 커지는 고영창의 세력에 불안감을 느끼고 그들을 공격해 물리친다. 고영창이 패퇴한 뒤 남은 발해 유민들은 전례로 보아 거란으로 돌아가면 처벌이 기다리지만 금으로 투항하면 환영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속속 금에 투항하는 동시에 앞장서서 거란 정벌에 나선다.⁸⁰⁾ 금의 입장에서 발해 유민의 편입을 통해 전력 강화가 이루어졌지만 그들을 잘 다독이지 못할 경우 발해 유민들이 요를 상대로 투쟁을 벌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상대로도 투쟁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당시 금으로서는 발해 유민 세력들을 잘 다독임으로써 자신들의 전력을 극대화시킬 방안이 필요했다.

이와 반대로 금에 귀부해 온 발해 유민들의 입장에서는 요대에 자기네 스스로가 이루지 못했던 발해 재건이라는 꿈을 금나라를 통해 이루고자 하였다.⁸¹⁾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금나라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필요했다. 동시에 발해 재건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나라의 지배층에 들어가야 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금과 발해의 입장에서 서로 간의 융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는 『금사』에서 시조에 대한 기록 바로 뒤에

“그 뒤 호십문(胡十門)이 갈소관(曷蘇館)을 태조(太祖)에게 바치면서 귀부(歸附)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선대 조상 가운데 세 분 형제가 이별하여 떠나간 적이 있다. 그 세 분 중 아고내의 후손이며, 석토문(石土門)과 적고내(迪古乃)는 보활리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태조가 국경에서 요(遼)나라 병사들을 물리치고 야율사십(耶律謝十)을 사로잡고는, 양복(梁福)과 알답랄(幹答剌)을 시켜 발해 사람들을 회유하기를 “여진과 발해는 본래 한 집안이다.”라고 하였으니, 애초에 모두가 물길의 7부족이었기 때문이다.”⁸²⁾

라는 내용이 삽입된 것을 통해 확인된다.⁸³⁾

78) 발해가 스스로 고려라 자칭했음을 『續日本記』의 기록(『續日本記』卷22, “(天平寶字 3年 春正月)及高麗蕃客等……庚午, 帝臨軒, 高麗使楊承慶等貢方物, 奏曰: 「高麗國王大欽茂言……」”) 이 외에도 해당 권에서는 발해를 가리키지만 발해 대신에 고려라는 국명이 9번 더 등장한다.)과 일본 나량시(奈良市) 평성경(平城京)에서 발견된 목간(달리 건고려사(遣高麗使) 목간(木簡)이라고 부르는 이 목간은 758년 발해사신 양승경(楊承慶) 일행과 귀국한 일본사신 일행을 언급하고 있는 목간으로 여기서 일본에서 발해에 보낸 일본사신을 일러 “건고려사(遣高麗使)”라고 지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7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위현, 『遼代渤海 復興運動의 性格』, 『명대논문집』 11, 명지대출판부, 1978을 참조.

80) 김위현, 「금대 발해인의 향방(方向)」, 『민족학연구』 7, 한국민족학회, 2009, 109쪽.

81) 김위현, 앞의 논문, 2009, 96쪽.

82) 『金史』卷1, 世紀, “其後胡十門以曷蘇館歸太祖, 自言其祖兄弟三人相別而去, 蓋自謂阿古乃之後. 石土門·迪古乃, 保活里之裔也. 及太祖敗遼兵於境上, 獲耶律謝十, 乃使梁福·幹答剌招諭渤海人曰: 「女直·渤海本同一家。」蓋其初皆勿吉之七部也.”

이와 달리 『고려사』에서 여진인들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았다’고 말한 것은 고려와의 외교 교섭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표 2> 고려사-a의 내용은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그들의 지역에 9성을 쌓자 1109년 오아속이 9성의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보낸 요불(曷弗) 등이 언급한 내용이다. 여기서

“영가(盈歌)가 일찍이, 우리 조상도 큰 나라인 고려 출신이니 자손 대대까지 귀부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태사를 맡고 있는 오아속(烏雅束)도 역시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고 있습니다.……만약 9성을 되돌려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안정된 생업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면, 하늘에 맹세코 자손대대로 조공을 정성껏 바칠 것이며, 감히 기와 조각 하나라도 귀국의 영토에 던지지 않겠나이다.”⁸⁴⁾

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당시 여진이 고려에게 패해 자신들의 터전인 9성을 잃음으로써 생업에 지장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진족은 자신들의 터전인 9성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9성을 점유한 고려에게 잘 보여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자손 대대까지 귀부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라던지 “하늘에 맹세코”, “기와 조각 하나라도 고려의 영토에 던지지 않겠다.”는 등의 아부성 말을 고려에 전한 것이다. 그리고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고 있다는 말도 여진이 고려를 부모로 모시고 있으니 고려도 여진을 자식처럼 잘 보아달란 정치적 목적을 내포한 정치적 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표 2> 고려사-c의 내용은 1117년 금 태조가 아지(阿只) 등의 5인을 고려로 보내 양국의 우호를 다지기를 원하며 보낸 국서인데 여기서 고려를 부모의 나라(父母之邦)로 삼았다는 표현이 보인다. 이는 당시 고려가 금이 거의 공격에 성공했던 보주(保州)를 먼저 손에 넣었던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⁸⁵⁾ 보주가 고려의 손에 들어감에 따라 금이 고려를 자극할 경우 요와 고려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 더불어 금은 내부적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못했고 병력도 충분하지 못한 탓에 고려를 자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⁸⁶⁾ 따라서 1117년에 보낸 국서에서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 이전 9성의 반환에 대해 요청하면서 했던 말을 상기시킴으로써 후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⁸⁷⁾ 그리고

83) 三上次男, 앞의 논문, 1941. 이동복도 호십문에 대해서는 호십문이 새로 일어나는 금에 귀부하면서 금나라 황실과 동종(同宗)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일찍이 여진인 사이에 전해지던 삼조이주전설(三祖移住傳說)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고, 호십문은 원래 완안부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동복, 앞의 논문, 1981.

84) 전관홍도는 영가가 조상이 고려 출신이라고 한 것은 영가시기에 고려와 공적인 외교 교섭을 개시하면서 시조 전설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田坂興道, 앞의 논문, 1933.

85) 보주문제는 12세기 초엽 금과 고려의 최대 외교현안이었다. 보주는 993년 요와 고려의 회담을 통해 고려의 영토로 합의되었으나 1014년 다시 요가 점령하면서 100여 년 동안 요에 속하며 계속적인 영유권을 주장하였던 지역이다(김순자, 「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 정책-압록강선 확보 문제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11, 동북아역사재단, 2006). 이를 1115년 금이 공격하여 1117년에 이르러 거의 도모했을 때 고려가 먼저 보주로 들어감으로써 보주가 고려에 귀속된다. 이후 1130년 금의 태종이 보주에 들어간 금나라 호구의 수색을 중단함으로써 보주는 완전히 고려의 영토로 편입된다. 이에 대해 조복현은 금이 보주에 대한 고려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며 당시의 국제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조복현, 「12세기 초 국제 정세와 麗金간의 전쟁과 외교」, 『동북아역사논총』 34, 동북아역사재단, 2011, 67쪽.

86) 자세한 내용은 강준영, 「12세기 초엽 금(金)의 대(對)고려 관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의 IV장을 참조.

87) 이효연은 이 내용에 대해 여진의 조상이 고려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고, 금을 건국하기 전에 여진 여러 부

당시 금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여기고 있었다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았다는 말에 이어서 형제맹약을 맺자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 2> 고려사-b의 내용은 1115년 금을 건국한 여진이 어떠한 부족인지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 금의 시조가 누구인지에 대해 언급하는데 있어 그 앞에 ‘혹자가 말하길[或曰]’이라고 쓰고 있다. ‘혹자가 말하길[或曰]’이란 표현은 시조의 사적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까닭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상차남은 금나라 황실의 시조라고 본 금준(今俊) 혹은 김극수(金克守)라는 인물은 기획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금에 대한 우월감을 유지하려했기 때문으로 보았다.⁸⁸⁾ 실제 이 언급이 여진족이 금을 세운 해에 한 것임을 통해 볼 때 삼상차남의 의견이 사리에 맞다고 보인다. 하지만 금의 시조가 평주 사람이었다는 내용이 일치하여 내려왔던 것으로 보아⁸⁹⁾ 혹 금나라 황실의 시조가 평주 출신인 신라(新羅)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금나라 황실 시조의 내원지인 신라와 고려를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함으로써 잘못된 논리 전개를 한 측면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금나라 시조의 출자지로 기록된 ‘신라’와 ‘고려’를 따로 분석해 본 결과 금의 시조는 신라인이었으며 『금사』와 『고려사』에서 시조가 고려에서 왔다고 한 기록은 각기 발해유민과의 융화나 고려와의 외교 교섭을 위한 표현이었음이 확인된다.

IV. 맺음말

금을 건국한 여진족은 고려와 고려의 건국에서부터 금의 건국에 이르기까지 국경을 접하며 200여 년이란 시간 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리고 12세기 초엽 여진족이 금을 건국한 후 차례로 요와 송을 무너뜨리면서 동북아시아는 금을 정점으로 하여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함에 따라 금과 고려의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오랜 시간 교류를 맺었던 금과 고려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금을 세운 완안부의 시조가 어디 출신이냐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기존의 문헌들을 재검토하여 살펴보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우선 금나라의 시조는 일본 학자들이 가공적 인물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실존했던 인물임을 3가지의 논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실존했던 금나라 황실 시조의 출자지로 기록된 ‘신라’와 ‘고려’로 기술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홍호가 『송막기문』에서 그의 시조가 신라인이라고 기술한 이래 송나라와 그 후인들이 저술한 한적사로 대부분에서는 금의 시조를 신라인이라고 기술하였다. 이는 홍호가 기술한

족이 고려에 복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의 나라처럼 섬겼다는 의미로 보았다. 이효연, 「高麗前期의 北方認識-발해·거란·여진 인식 비교-」, 『지역과 역사』 19, 부경역사연구소, 2006, 83쪽.

88) 三上次男, 앞의 논문, 1941, 37쪽.

89) 이동복, 앞의 논문, 1981, 283쪽.

내용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송나라 조정에서 수차례 제정된 ‘편직’들을 통해 홍호의 기술 이전부터 여진지역을 신라로 비정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며 여진을 신라인으로 여기고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진지역에 있던 ‘신라산’의 존재를 통해서도 여진과 신라와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금나라와 고려의 정사인 『금사』와 『고려사』에서는 금나라의 시조를 고려 출신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양국의 정사에서 금나라의 시조를 고려 출신이라고 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금사』에서 시조를 고려 출신이라고 한 것은 고구려 후예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발해와의 융합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한편 『고려사』의 기록에서 금나라가 자신들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았다.’라거나 시조가 고려 출신이라고 한 이유는 정치적 수사였다. 더불어 고려에서 금의 시조가 평주 출신의 사람이라고 기술한 이유는 그 해 나라를 세운 금에 대한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들이 금나라 시조의 출자지인 ‘신라’와 ‘고려’를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이 달리 쓰인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실제 이들이 신라와 고려로 달리 기술한 연유가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금과 고려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九朝編年備考』, 浙江大學圖書館藏 四庫全書本.
 『嘉定赤城志』, 浙江大學圖書館藏 四庫全書本.
 『建炎以來繫年要錄』, 浙江大學圖書館藏 四庫全書本.
 徐規 點校, 『建炎以來朝野雜記(全二冊)』, 中華書局, 2000.
 『高麗史』, 서울대 규장각 영인본.
 『金史』,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1975.
 崔文印 校證, 『大金國志校證(全二冊)』, 中華書局, 1986.
 『大東水經』, 한국고전종합DB.
 黎烈文 標點, 『大宋宣和遺事』,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7.
 『文獻通考(全二冊)』, 中華書局, 1986.
 『三朝北盟會編(全二冊)』, 上海古籍出版社, 1987.
 『釋氏稽古略』, 浙江大學圖書館藏 四庫全書本.
 『星湖僊說』, 한국고전종합DB.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全六冊)』, 中華書局, 1986.
 『續日本記』, 國史大系 第貳卷.

- 汝企和 點校, 『續編兩朝綱目備要』, 中華書局, 1995.
- 『松漠紀聞』, 早稻田大學圖書館藏本.
- 『宋史』,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1977.
- 『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고전종합DB.
- 『兩朝綱目備要』, 浙江大學圖書館藏 四庫全書本.
- 『燕巖集』, 한국고전종합DB.
- 『遼史拾遺』, 浙江大學圖書館藏 四庫全書本.
- 『遼史』,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1974.
- 『(中外交通史籍叢刊)西遊錄·異域志』, 中華書局, 1981.
- 崔文印 箋證, 『靖康稗史箋證』, 中華書局, 1988.
- 『朝鮮王朝實錄』, 한국고전종합DB.
- 『靑莊館全書』, 한국고전종합DB.
- 『海東繹史續』,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 『欽定金史語解』, 浙江大學圖書館藏 四庫全書本.
- 『欽定滿洲源流考』, 浙江大學圖書館藏 四庫全書本.
- 『欽定盛京通志』, 浙江大學圖書館藏 四庫全書本.
- 『欽定重訂大金國志』, 浙江大學圖書館藏 四庫全書本.
- 김달수(지), 배석주(역), 『일본 속의 한국문화 유적을 찾아서3』, 대원사, 1999.
- 김위현, 『遼金史研究』, 裕豐出版社, 1985.
- 김육불(지), 동북아역사재단(역), 『(김육불의) 東北通史(下)』, 동북아역사재단, 2007.
- 이만열, 『韓國近代 歷史學의 理解』, 문학과 지성사, 1981.
- 이명도, 『한국사(韓國史): 중세편』, 을유문화사, 1961.
- 채태형, 『발해사 연구7(역사지리3)』, 북한사회과학원, 1999.
- 李治亭, 『東北通史』, 中州古籍出版社, 2003.
- 張博泉, 『金史簡編』, 遼寧人民出版社, 1984.
- 何光嶽, 『女眞源流史』, 江西教育出版社, 2004.
- 三上次男, 『金史研究1: 金代女眞社会の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1971.
- 三上次男, 『金史研究2: 金代政治制度の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1972.
- 三上次男, 『金史研究3: 金代政治・社会の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1973.
- 토마스 바필드(지), 윤영인(역), 『위태로운 변경』, 동북아역사재단, 2009.
- P. G. von Möllendorff, *A Manchu Grammar, with Analysed Texts*,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92.
- 강준영, 「12세기 초엽 금(金)의 대(對)고려 관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상기, 「금(金)의 시조(始祖)에 대하여」, 『國史上의 諸問題』 5, 국사편찬위원회, 1959.
- 김순자, 「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 정책 - 압록강선 확보 문제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논총』 11, 동북아역사재단, 2006.
- 김영제, 「麗宋交易의 航路와 船舶」, 『역사학보』 204, 역사학회, 2009.
- 김영제, 「北宋 神宗朝의 對外交易 政策과 高麗」, 『東洋史學研究』 115, 동양사학회, 2011.
- 김영제, 「교역에 대한 宋朝의 태도와 高麗海商의 활동 - 高麗 文宗의 對宋 入貢 배경과도 관련하여 -」, 『역사학보』 213, 역사학회, 2012.
- 김위현, 「麗宋關係와 그 航路考」, 『關大論文集』 6: 1, 관동대학교, 1978.
- 김위현, 「遼代渤海 復興運動의 性格」, 『명대논문집』 11, 명지대출판부, 1978.
- 김위현, 「금(金)건국과 발해유민 -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토론 -」, 『고구려발해연구』 29, 고구려발해학회, 2007.
- 김위현, 「금연구」,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 김위현, 「금대 발해인의 향방(向方)」, 『민족학연구』 7, 한국민족학회, 2009.
- 류병재, 「중국의 여진(女眞)언어와 여진사(金史) 관련 연구문헌목록」, 『北方文化研究』 3, 북방문화연구소, 2012.
- 박현규, 「중국 福建 남부 新羅 명칭 고찰」, 『신라문화』 28,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6.
- 박현규, 「台州地區 羅麗 유적과 지명에 관한 고찰」, 『신라문화』 31,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8.
- 송기호, 「東아시아 國際關係 속의 渤海와 新羅」, 『韓國史市民講座』 5, 일조각, 1989.
- 육정임, 「고려·거란 '30년 전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동북아역사논총』 34, 동북아역사재단, 2011.
- 육정임, 「중국학계의 송금관계사 연구동향 - "중화민족일체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 최근 중국학계의 연구동향과 그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윤승준, 「금 태조 및 선대 제왕 설화에 대한 고찰」, 『아시아문화연구』 29,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 윤해동, 「식민주의 역사학 연구 시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 이동복, 「金の 始祖傳說에 대하여」, 『清大史林』 3, 청주대 사학회, 1979.
- 이동복, 「金の 始祖傳說에 대한 一考察」, 『동국사학』 16: 1, 동국사학회, 1981.
- 이효연, 「高麗前期의 北方認識 - 발해·거란·여진 인식 비교 -」, 『지역과 역사』 19, 부경역사연구소, 2006.
- 조복현, 「12세기 초 국제 정세와 麗金간의 전쟁과 외교」, 『동북아역사논총』 34, 동북아역사재단, 2011.
- 정구복, 「高句麗의 '高麗' 國號에 대한 一考 - 三國史記의 기록과 관련하여 -」, 『역사와 담론』 19·20, 호서사학회, 1992.
- 최진열, 「唐代 高句麗 표기 기피현상 - 隋唐 墓誌銘의 國名 표기 분석을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논총』 38, 동북아역사재단, 2012.
- 테무르, 「북방민족 왕조와 중국역사」,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2010.
- 한영우, 「民族史學의 成立과 展開」, 『국사관논총』 3, 국사편찬위원회, 1989.

- 허인옥, 「高麗 中期 東北界에 대한 考察」, 『白山學報』 59, 백산학회, 2001.
- 綦巖, 「傳說與歷史之間—金代始祖函普研究」, 『牡丹江師範學院學報』, 2012-6.
- 蒙古托力, 「女真及其金朝與高麗關係幾個問題考論」, 『滿語研究』, 2000-1.
- 王崇時, 「十至十二世紀初女真與高麗的關係」, 『北方文物』, 1986-3.
- 李學智, 「釋女真(上)」, 『大陸雜誌』 16: 2, 1958.
- 趙永春, 「金朝始祖函普族屬考辨」, 『滿族研究』, 2006-1.
- 內藤虎次郎, 「女真種族の同源傳説」, 『民族と歴史』 6: 1, 1921.
- 三上次男, 「金室完顔家の始祖説話について」, 『史學雜誌』 52: 11, 1941.
- 小川裕人, 「三十部女真について」, 『東洋學報』 24: 4, 東洋協會學術調查部, 1937.
- 外山軍治, 「松漠紀聞の著者洪皓について」, 『金朝史研究』, 東洋史研究會, 1964.
- 田坂興道, 「完顔氏の三祖傳説について」, 『歴史學研究』 8: 6, 歴史學研究會, 1933.
- 池內宏, 「金史世紀の研究」,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11, 1924.
- 池內宏, 「金史世紀の研究」, 『滿鮮史研究—中世 第一冊』, 吉川弘文館, 1933.

* 이 논문은 2017년 3월 2일에 투고되어,
 2017년 3월 13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7년 3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4월 3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Review of the Origin of the Progenitor of the Jin Dynasty

Kang, Junyoung*

This paper reviews the existing views and presents a new view on the origin of the progenitor of the Jin Dynasty, which is discussed first in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in and Goryeo. Previous studies of by Japan, China, Korea's researchers because of their political stance was subjectively. Also, the existing studies tended to try to understand 'Silla' and 'Goryeo' in the same line and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data in the self-centered viewpoint. However, there was a different reason for describing the origin of the Jin Dynasty differently in historical data written in Chinese letters.

First of all, Usually most of historical data written about the origin of the progenitor of the Jin Dynasty from 'Silla' was by the people of the Song dynasty, started from *〈The Sketches in Jin Dynasty〉* (松漠紀聞) written by Hong hao(洪皓). But, The people of the Song dynasty regards Jurchen's region as a Silla. It can be seen from 'Bianchi(編勅)'. Also, In *〈Xuanhe yisi fengshi Jinguo xingcheng lu〉* (宣和乙巳奉使金國行程錄) by Xu kangzhong(許亢宗) written about in Jurchen region's 'Silla Mountain'. Uasu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people of Silla remained in the name of Silla after the destruction of Silla. Also, it can be presumed that the origin of the Jin dynasty was from Silla who lived around the Silla Mountain.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een that the reason for writing the origin of Jin was from Goryeo was political measures to stay in harmony with displaced people of Balhae or to have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Goryeo.

[Key Words] Jurchen, Origin of the Progenitor of the Jin Dynasty, Silla, Goryeo, Song Dynasty, Silla Mountain

* Doctor's course, Inner Mongolia University

